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병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소기업 간 지식·기술융합 촉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신제품·신기술 개발, 신시장 진출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업종 중소기업 간 지식·기술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신사업 창출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식·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이업종교류그룹은 274개로 일본의 2557개에 비해 10.7%에 불과하고, 참여기업은 5684개로 일본(14만5421개사)과 비교하면 3.9%에 불과하다. 광주·전남은 이업종교류그룹이 17개이고, 참여기업은 334개이다.

이업종교류에 의한 지식·기술융합화란 업종이 다른 기업들이 특정 조직으로 이업종교류그룹을 만들어 서로 다른 경영 및 기술 정보를 교류·결합함으로써 경영 능력을 강화하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 진출 능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다.

대기업과 하도급거래 관계를 갖는 분업 조직, 공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생산방식

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업종 기업 간의 지식·기술교류는 동일 업종에서 얻을 수 없는 외부경제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中企, 지식·기술 융합화로 키우자

일본에서 이업종교류에 의한 지식·기술융합화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이나, 중소기업의 이업종교류 활동이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1981년 중소기업 사업단의 주도로 '기술·시장교류프라자 사업'을 시행하면서부터이다. 이를 계기로 이업종교류그룹이 활발하게 결성되며, 중소기업 간 이업종교류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이업종 중소기업 간 지식·기술교류 활성화를 통해 신기술개발 및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 지식·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역전략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산업 육성 등과 연계하여 지식·기술융합 단계별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

다.

먼저, 교류단계에는 이업종교류그룹 결성과 활성화를 지원하고, 교류전문가를 선정·양성하며, 이업종교류프라자 사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 교류단계에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50%씩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음, 개발단계에는 지식·기술융합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분석사업과 전용 기술융합개발자금 및 조세지원 특례 마련 등이 필요하다. 개발단계에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해당 사업자(참여 중소

기업)가 소요비용을 3분의 1씩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화 및 시장전개 단계에는 지식·기술융합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제도 특례를 마련하며, 조세 지원, 지식·기술융합 결과의 특허 신청에 따른 특허료 감면과 지식·기술융합화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간 지식·기술융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중소기업융합화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융합화센터에는 교류전문가를 최소 1인 이상 배치하여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별 단위교류회 구성과 활동 현황, 지식·정보교류 성공사례, 지식·기술교류의 장

등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D/B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광주는 자동차, 가전, 광산업, 문화산업, 그린에너지산업을 5대 주력산업으로 특화 발전시키고, 정밀금형, 전자, 헬스케어 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고, 전남의 전략산업은 신소재·조선, 생물(밸효식품), 대체에너지, 문화관광, 물류산업이다. 실행과정에 선택과 집중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겠지만, 기업중간 지식·기술융합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통해 기존 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지원하고, 광산업, 가전, 자동차, 문화관광, 대체에너지, 식품, 의료, 금형, 물류 분야를 서로 접목시키며, 녹색융합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제2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고 기존 기업이 신사업 분야로 전환하는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은 산업 측면에서 전후방 연관관계가 매우 높으므로 지식의 창조·확산·활용 및 산업간 융합화를 통해 산업적 연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광주와 전남이 자원과 잠재력에 기반한 지역별 역할분담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선은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부터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골목상권 몰락위기' 특단의 대책 세워야

광주지역에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움직임이 구체화되면 서 영세 상인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네트워크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롯데슈퍼를 가맹점 형태로 광주시 남구 노대동에 SSM 개점 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북구 삼각동에서는 S급인이 대형마트 개점을 위한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여타 지역에서도 SSM 입점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형 마트나 슈퍼마켓의 영토 확장으로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가격 인하 경쟁을 벌여 골목상권이 붕괴되거나 일어난다.

영세상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인구 140만명인 광주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10여 곳에 이르고 기업형 슈퍼마켓도 16곳에

언제까지 '민생치안' 구호만 외칠 건가

최근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민생 치안 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김길태 사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광주의 도심 아파트 놀이터에서 한 여성이 괴한으로부터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지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9일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산책 중인 K(여)씨가 과한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다. 사건이 발생한 놀이터는 평소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활용됐지만 CC-TV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순찰에서는 한 어린이가 가장 집에 침입, 아이들을 협박해 8개월 동안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중학생들이 불잡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크게 늘고 있지만 당국의 차안력은 부실하기 그지없다. 경찰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민생치안'을 외치고 있으나 생계형 범죄와 강력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無等鼓

백두대간의 조종(祖宗), 백두산은 지금 찬란한 봄일 게다. 자작나무와 미인 송, 사스레나무 숲을 헤치고 해발 2,000m의 수립한계선 부근 고산초원에 오르면 사찰 푸른 만발초가 노란 꽃잎을 수줍게 펼칠 때다. 금매화, 담자리꽃 등 야생화도 곰비암비로 피어난다.

지리산에서 시작된 봄 물결이 대간을 타고 이제야 백두에 다다라 마지막 향연을 벌이는 것이다.

수차례의 폭발에 의해 이뤄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호(수면고도 2,189m)인 천지에 오르면 2,500m 길 16개 연봉이 병풍을 드는 듯 늘씬히 솟아 있다. 그 모습을 이 중환은 택리지에서 '온 나라의 빛나는 냇개'(一國華蓋)라 묘사했다.

영봉들과 분화구 사이에는 7~8월에도 얼음덩이를 들이 즐비하다. 원시의 숨결을 그대로 간직한 거친 화산지형은 등반의 묘미를 만끽하게 해준다.

휴화산(休火山) 상태인 백두산이 2014~2015년 다시 폭발할 개연성이 있다는 국내외 화산학자들의 주장이 있다. 1903년 마지막으로 분화해 폭발할 가능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사실상 활화산인 셈이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관측과 조사, 한·중·일 협력을 통한 대비책 마련이 질질한 시점이지만 자꾸만 꾼이고 경색돼가는 남북관계가 걱정이다.

/정후식 경제부장 who@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박현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그리스를 꺾더니 아르헨티나에는 안타깝게 졌다. 또 우리에게 패한 그리스는 나이지리아를 꺾어 한국 축구의 16강 가는 길이 '안개 속'이다.

월드컵 기간 중 흥분된 마음에 순간 실수를 하여, 폭행,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범죄들이 소폭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범죄들은 벌금형의 약식절차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다.

법원의 형사재판은 크게 약식절차와

①폭행은 경미한 경우 50만원, 보통의 경우 70만원 또는 100만원, 그 이상의 경우 수백만원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위 벌금의 약 1.5배부터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는다. ②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5~0.08% 벌금 100만원, 0.08~0.1% 벌금 150만원, 그 이상은 150만원 이상이다. ③식품점에서 중국산 고사리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경우 벌금 100만원, 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뉴질랜드산 쇠고기로 표시

벌금 없는 세상을 바라십니까?

정식재판으로 나뉜다. 그리 중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서류만으로 벌금 또는 과료를 청구하는 것 이 약식절차이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수사기록상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보통 같은 액수의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이때 피고인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벌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하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액을 하지 않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기도 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벌금액을 소개한다.

④웃가게 등에서 가짜 명품 가방을 팔거나 팔려고 보관하다 단속되면 최소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⑤책임보험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벌금 30만원부터, 하물며 중량차와 등의 경우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⑥공무집행방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식기소되지만 중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위에 소개한 모든 범죄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으면 벌금형이 더 올라간다.

벌금형도 전과에 포함되는데, 벌금액 수에만 관심이 있을 뿐 벌금형 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광주지방법원은 하더라도 하루에도 수십 건의 약식명령 사건이 접수되고, 형사법정마다 '벌금을 감액해달라'는 피고인들로 넘친다.

약식명령을 받는 사건 대부분이 순간적인 판단 착오나 실수에 의해 일어난다. 조심만 조심한다면 '벌금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 판사(형사 4단독))

기고



심명섭

공지생활을 시작하면서 외교관을 지낸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올해로 써 만 30년째 공직생활을 하지만 지금도 힘들 때면 마음을 주스로는 방법으로써 다산의 '독민심서'를 탐독하는 것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최근에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그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인이 그 배주벌레를 모르는 채 먹어버리면 다 끝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영부인은 감탄을 연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몸소 실천하는 공무원이 있는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세계를 자랑할 것이다." 필자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들은 이야기지만 그 당시 얼마나 얼마나 열정으로 일정한 일에 일어났다. 우리나라 젊은 외교관의 접시에 배주벌레 한 마리가 섞여 있었던 것이다.

그날도 의전행사의 전반부가 무사히 끝나고 후반부에 만찬이 베풀어졌다. 그런데 그 만찬장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나라 젊은 외교관의 접시에 배주벌레 한 마리가 섞여 있었던 것이다.

푸른색의 배주벌레가 풀을 거리는 접시를 들고 젊은 외교관은 순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의전관을 불러 접시를 바꾸어 달라고 할까? 아니면 슬쩍 모르는 체하고 배주벌레를 집어내고 대충 식사를 할까? 고민 끝에 젊은 외교관은 그 배주벌레를 상주일에 싼 다음 살며시 주위를 살펴본 후 아무도 모르게 한 입에 넣고 오물오물 삼켜버렸다.

사건은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그의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는 눈치를 뱉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총통의 영부인이다. 만찬이 끝난 뒤 영부인은 조용히 우리나라 젊은 외

〈전남대 학술정보윤영과장·행정학 박사·수필문학가〉

도서관 열람실 타인 위해 조용히 이용해야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그러나 도서관 열람실에 가보면 청소년, 가족 단위 이용자들이 부쩍 늘어나 이들이 주위를 이랑듯하지 않고 떠드는 바람에 열람실 내 면화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

몇몇 중·고등학생들은 큰 소리로 깔깔거리며 웃고 어떤 학생들은 3~4m밖에서도 들리는 헤드폰을 켜 채 음악을 듣는다. 더 큰 문제는 떠드는 아이를 나무라지 않는 부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사 회 2 부 2200	